

아주대의료원 소식

선천성 소아 심장질환에 새로운 치료법 도입

1995년 8월호
통권 제 10호
발행인 겸 편집인 / 李城洛
편집 / 홍보과
발행처 / 아주대학교의료원
☎442-7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신 5번지
전화 / (0331)219-5114, 6114



▲ 심혈관 조영촬영기를 이용하여 소아 심장수술을 하고 있는 소아과 수술팀(중앙이 鄭勳元 교수)

아주대학교병원 소아과는 선천성 심장질환의 하나인 동맥관개존증(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의 동맥관이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상태)을 Cardiac Angiography System(심혈관 조영촬영기)를 이용하여 혈관내에서 폐색시키는 수술을 경기도내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아주대학교 병원 소아과 洪昌虎, 鄭勳元 교수 수술팀은 생후 18개월된 동맥관개존증 女兒에게 첨단 의료장비인 Cardiac Angiography System을 이용한 경도관적 폐색술을 실시, 기존의 선천성 심장기형아의 치료에 적용되어 온 개심수술에 따르는 위험도와 피부손상을 없앴다는 것.

이번에 실시된 경도관적 폐색술은 가슴을 절개하는 외과적 수술과는 달리 환자의 우측 다리 혈관에 카테타(가느다란 철사줄 굵기의 관)를 삽입, 인공침포로 심장혈관의 결손 부위를 막아주는 최신 시술법으로 결손부위를 완전히 막는다는 점에서 기존 수술법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체중이 적은 소아 수술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거의 없고 시술후 수술자극에 의한 가슴의 피부손상이 없어 소아가 성장후 가지게 되는 외관상 스트레스를 없애며, 입원기간이 짧고 통증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치료비 또한 高價인 이유로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수술을 시행한 소아과 鄭勳元 교수에 따르면 경도관적 폐색술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구미각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시술법이라고 설명하고 洪昌虎 주임교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번에 동맥관개존증으로 진단받은 女兒에게 이 시술법을 처음으로 적용, 이를 후환이 없을 양호한 상태로 퇴원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洪昌虎 소아과 주임교수는 이번 시술의 성공으로 우리 병원은 수월 및 경기지역 선천성 심장기형 소아들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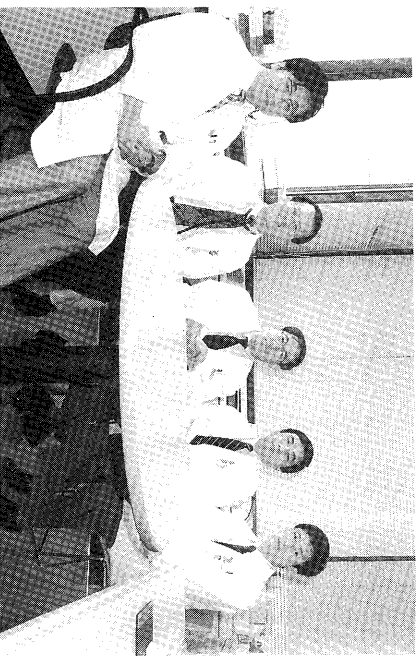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내 첫 신장이식 수술 성공

우리 병원은 지난 4월 간이식 수술 성공에 이어 6월에는 신장 이식수술에서도 성공함으로써 경기도 지역 유일의 3차 진료기관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우리 병원 신장이식 수술팀(일본외과 金明旭 교수, 吳昌權 교수, 비뇨기과 金英洙 교수, 신장내과 金晔憲 교수, 미취과 徐榮善 교수)은 지난 6월29일 도내 처음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 성공적으로 끝마침으로서 앞으로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내에서도 활발한 신장이식 수술이 기대될 전망이다. 신장이식 수술은 고난도의 시술이지만 비교적 간편해진 신장이식 수술은 서울 및 일부지방 대학병원에서만 집중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이번에 우리 병원이 성공시킴으로써 경기도 지역에서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이식수술은 평범한 가정주부 金모씨(여, 48세)가 본인 사회사업과에서 벌이고 있는 「사랑의 무료 장기기증 운동」을 통해 신장을 기증함으로써 가능했는데(하단 기사 참조) 이식 수술팀은 공여자 金모씨를 수술 일주일 전 입원시켜 각종 검사를 시행하면서 수여자 선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 우리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던 徐모씨(남, 54세)를 최종 수여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수술팀은 金씨에게서 왼쪽 신장을 적출, 곧 바로 徐씨의 오른쪽 신장부에 이식함으로써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수술을 집도한 일본외과 吳昌權 교수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 수술에 돌입, 다섯시간만인 오후 1시에 수술이 끝났으며, 공여자와 수여자 모두 양호한 회복상태를 보여 공여자의 경우 수술후 1주일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金明旭 교수(이식수술팀장)에 따르면 이번 이식수술은 우리 병원의 3차 진료기관 지정과 동시에 열린 개가파면서 이번 수술로 우리 병원도 간을 비롯한 각종 장기에 대한 본격적인 이식수술 시행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도내 처음으로 신장이식을 성공시킨 아주대학교병원 이식수술팀 (좌측부터)오창권(일본외과), 김도현(신장내과 주임교수), 김명욱(일본외과 주임교수), 김영주(비뇨기과 주임교수), 김세중(비뇨기과) 교수



▲평범한 이식수술을 위해 애써준 수술병 간호사들 (좌측부터)이정숙, 박정옥, 한정숙, 윤경숙 간호사.

따뜻한 인간애를 담은 평범한 가정주부

평범한 가정주부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일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수 원시 권선동에 거주하는 金모씨(48세, 女)는 지난 6월29일 아주대학교병원이 긴 준비기간 끝에 처음 시행한 신장이식

수술에 자신의 신장을 기증, 우리 병원에서 민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치료를 받아오던 徐 모씨(54세, 남)에게 새 삶을 주었다.

金씨는 평소 이웃을 위한 일이면 앞장서서 봉사한다는 좌우명을 간직하고 6년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꺼져가는 생명을 도우려 했다고 미안스럽게만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미뤄오다가 이번에 실천에 옮기게 되었고 한다.

하지만 수여자, 공여자 그리고 집도할 의사가 있다고 해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 정책의 필요성

이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李鎬樂, 鄭樂基, 林起榮, 李承文, 盧載成)은 국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 부터 94년도 정신보건 용역연구 의뢰를 받아 「정신질환자 재분류 및 정신보건의료시설 기준

조사된 입원기간에 비하여 매우 길게 입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국내 정신보건정책

정신과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1천1백28명중 보호자에 의한 입원 및 입수가 52.6%인 5백92명,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이 14.8%인 1백67명인 반면, 자발적인 입원, 입수는 4.4%인 50명에 불과했다.

이 방법으로 연구팀은 국내 정신보건정책이 입원, 수용 중심에서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시설, 거시시설, 알콜중독 치료센터, 직업재활센터, 낮병원, 주간재활센터 등의 기능중심 치료서비스로 바뀌어야 하며 의료기관도 일차 평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반드시 행해져야 하고 급성환자의 진료시설, 만성환자 진료시설, 입원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시설, 퇴원후 치료시설, 재활시설, 거거시설, 알콜 및 약물

결과 조사대상자의 54.9%인 6백18명이 현재의 입원 및 입수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입원, 입수 중심의 현재의 국내보건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를 최근 10년간에 정신의료시설의 병상수가 약 3배 증가하는 등 국내의 정신보건정책이 입원, 수용중심으로 편향되는 것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결과로서 입원경위만 보더라도 보호자에 의한 입원 및 입수가 전체 대상자의 52.6%인 5백92명,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이 14.8%인 1백67명인 반면, 자발적인 입원, 입수는 4.4%인 50명에 그쳤다. 또한 입원기간도 전체대상자의 50%가 7백61일 이내였으나 나머지 50%는 7백61일부터 5천1백77일까지로 나타나 지금까지 기관별로 발표되거나

중독 치료센터, 노인치매시설 등의 다양한 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한 앞으로는 국내의 정신질환자가 어떤 기관에 입원, 입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의 종류, 상태, 연령, 기능 정도 등을 고려한 기능중심의 시설에 환자를 재분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위해서 국내의 정신보건정책이 단순한 병상의 증설에서 벗어나 여러가지 기능이 분화된 시설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은 95년도에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보건 용역을 의뢰받아 「정신응용원 입소환자의 사회복귀 및 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양이었다. 수술 며칠전 가족들의 만류와 숲씨 집안내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었지만 숲씨의 순수한 믿음과 종교의 힘이 다행스럽게도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숲씨는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됨에 따라 장기기증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심하고 지난 3월 이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과에서 벌이고 있는 「사랑의 무료 장기기증 운동」에 문을 두드리게 됐다면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

증한 것은 나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 장기를 기증하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 무료 장기기증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사회사업과 姜興求 과장에 따르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는 사람 들중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외로 많 다면서 숲씨와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직접 병원에 찾아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만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이라고.

아주대학교 의료원 무의촌 의료봉사

의료원은 의과대학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속병원의 설립이념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경기도.

안성군 고삼면(21개촌)702세대)과 충북 진천군 백곡면(27개촌 880세대)에서 주민 약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46명의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번에 실시된 무의촌 의료봉사의 특징은 참가를 희망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을 자유롭게 참여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인원을 구성, 봉사활동이 형

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친 결과, 교원(9), 전공의(2), 약사(1), 사회복지사(1), 간호사(7), 영양사(2), 산업의학과(2), 임상병리사(1), 학생(21) 등 모두 46명의 인력이 참가했다. 또한 농촌의 인구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의 9명이 성인병을 중심으로 진료활동을 했는데 X-Ray, 심전도 및 기타 검사장비 등을 이용해 질적인 면에서도 만전을 기했다는 것이다.

이번 무의촌 의료봉사팀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3부4일동안 안성과 진천에서 모두 4백50여명에게 내과(183건), 소아과(5건), 일반외과(3건), 정형외과(70건), 산부인과(49건), 이비인후과(3건), 치과(48건) 등의 진료활동을 펼쳤다. 특히, 선진성 심실중격결손 어린이 2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것은 봉사활동 기간중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사업과에서는 이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집으로 직접 방문해 진료한 경우가 6건, 외상으로 인한 응급 봉합 수술 2건 등이 있었고 여성의 경우 자궁암 검사를 모두 실시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지 보건지소를 통해 본인에게 검사결과를 직접 통보해 줄 예정이며, 간질 환이 의심되는 147명의 주민들은 임상병리과에 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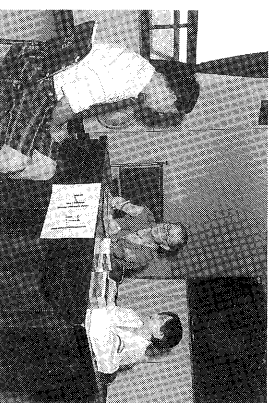
능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 대표적 성인병인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 崔炳日 교수(순환기내과), 鄭允碩 교수(내분비대사내과)가 각각 강의했으며 지역 공중보건

의들과 농촌 의료실태에 대한 토론시간도 가졌다.

한편, 각 가정을 방문 지역사회의 만성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펼친 예방의학교실은 성인병에 대한 건강상담 및 혈압, 혈당검사를(대상인원 1216명)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의료실태를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인데 참고로 이지역 보건지소가 보유하고 있는 환자분포표에 따르면 고혈압, 관혈염, 신경통 및 노인성 질환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崔炳日 교수에 따르면 교직원 및 학생들은 스스로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된 인원인 만큼 질적으로 훌륭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하고, 학생교육을 담당했던 文晝晷 교수는 무의촌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실습이 이루어져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어려운 농촌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인성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姜興求 사회사업과장은 농촌지역 특성상 소득이 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지만 의료측면에서 도시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봉사기간동안 4백여명의 환자중에는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 崔炳日 단장이 환자와 상담하고 있다.

심장병 어린이 돕는 대학교수

심장재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7년동안 10여명의 아이들에게 새생명을 —

고통받는 어린 환자를 보는 것은 그 이유가 어찌하건 괴로운 일이다. 더구나 그 고통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가족은 물론 주변의 이에게도 가슴에 아픈 상흔을 남긴다. 그러나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들이 있어 메마른 사회에 청량한 메시지를 가슴에 던져 주곤 하는데.....

아주대학교병원에서도 이러한 이들은 적지 않다. 다만 그들은 숨어서 선행을 실시할 뿐이다. 우리 주위에는 선천성 심장병(심실중격결손증)으로 고통받는 어린 아이들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 정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어린이 또한 적지 않다. 이런 어린 생명들에게 새 삶을 주는데 헌신적인 대학교수가 있어 소개한다.

이 아이기의 주인공은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차영배 교수(50세). 차교수가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서 돕게 된 동기는 8년전 자신의 아들(8세)이 심실중격결손증으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실에 아들을 들여보내고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베를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 심장병 수술을 요하는 환자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를 돕기로 했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차교수는 심장병 어



▲ 지난 6월에 차교수의 도움으로 수술을 마친 최영재 아기를 아버지가 쓰다듬고 있다.

방법을 이용해 기업체에서 특강을 하고 받는 강 의료를 틈틈이 모아 도움을 손길을 펼치고 있는 차교수는 수입이 있는 한 계속해서 심장병 어린이들을 도움 생각이 있다고....

린이의 수술에 뜻을 같이하는 의사를 모색하기 위해 인하대학교병원에 문의한 결과 때미침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 심장병 어린이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현재의 아주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최필평교수를 만나게 된 것. 그리고 그때부터 7년 동안 10여명의 아이들에게 새생명을 주었는데, 특히 심장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정보수집은 부산에서 심장병 어린이 상담 및 요양소를 운영하느 김미키엘 수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 병원에서는 차교수와 교수, 슌미키엘 수녀가 협의한 결과 첫번째로 지난 4월 경북 영덕에 사는 박지운 아기(3살)와 6월에는 마신에 사는 이영재 아기(2살)를 두 번째로 수술했는데 두 아기 모두 현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수술자금 마련에 대해서 차교수는 방법을 이용해 기업체에서 특강을 하고 받는 강의료를 틈틈이 모아 도움을 손길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4월 徐廷鏞 아주대학교병원장은 이러한 사연을 듣고 차교수를 만나 병원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을 전했다. 차교수는 앞으로도 수없이 있는 한 계속해서 심장병 어린이들을 도움 생각이되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수술을 해줄 수 없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여름철에 잘 생기는 어린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

면역기능이 약한 아이들에게 여름철은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계절. 그렇다고 여름을 건너뛸 수도 없고... 벨레에 물리거나 물놀이 등으로 인한 각종 질병감염에 대해 그 예방과 치료법을 소개하오니 부디 들어보십시오.

피부질환

땀띠

아이들은 체열의 발산을 주로 땀을 흘려 조절한다. 여름철 무덥고 습기찬 환경에서는 땀의 분비가 많이진다. 이때에 땀샘이 기계적으로 차단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연약한 피부가 지무르게 되는데 이것을 땀띠라 한다. 증상은 소양감, 적열감과 함께 구진과 발적이 생기는데 여기에 베이비 파우더를 뿌린다고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땀을 흘린 뒤 목욕을 자주 시키고, 옷을 두텁게 입히거나 벗겨놓지 말고 통풍성이 좋은 옷으로 자주 갈아입힌다. 땀띠가 심해지거나 기려워 긁으면 감염되기 쉬우므로 조심해야 한다.

전염성 농기진

화형기 이전의 소아에 흔히 발생하는 피부병으로 포도상구균과 연쇄상구균이 그 원인이다. 피부에 작은 흉편이 생기기 시작하여 수포를 형성하고 파열되면 삼출성 및 화농성 액이 말라붙어 황색 기피가 형성되는데, 전염성이 강하여 끊임 없이 닿는 곳을 따라 얼굴, 목, 겨



▲ 농기진의 전형적인 모습.

드랑이, 손, 발, 엉덩이 등 모든 곳에 전파된다. 드물기는 하지만 합병증으로 사구체 신염이 발생하여 피오솜과 부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 피부를 항상 깨끗이 하는 것이 예방책이며, 치료는 병소부위를 깨끗이 하고 긁지않게 주의하며 의사의 진찰을 받고 적절하게 내복이나 외용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면 된다.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의사의 지시없이 치료를 중단하면 쉽게 재발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벨레물림

모기나 진드기, 독나방 등은 여름철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귀찮은 존재이다. 이들 벨레에 물리면 가려워 긁게 되고 이차적으로 더러운 균이 들어가 상처가 굼기 쉽다. 벨레에 물리면 항히스타민 연고를 발리주고 냉습포를 해준다. 모기향 또는 모기장을 쳐 이들 벨레로부터 미리 보호하는 것이 현명하며, 야영을 해야 할 경우에는 피부에 곤충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용액을 노출부위에 바르는 것도 한 수단이 된다. 벨레에 물릴 때마다 부종, 물집, 발적 등이 심하게 발생되는 체질은 곤충알레르기가 의심되므로 알레르기를 전공하는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소화기계 질환

여름철이 되면 기온이 높아 음식물이 상하기 쉽고, 위생적이지 못한 찬 음식을 찾게 되어 세균성 이질, 대장균 감염 및 비정티프스성 살모넬라증 등 각종 세균감염에 의한 소화기 질환이 많이 발생

한다. 이들의 증상은 대개 급작스런 복통 구토 및 설사, 심한 경우 혈변까지 보이며, 대부분 입원 치료를 요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찬 음식을 선별하여 섭취하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시냇물 또는 샘물을 취급할 때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집안에 이러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 감염전파가 가능하므로 용변후 손을 잘 씻고 문고리나 음식 등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호흡기계 질환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하여 실내외의 온도차가 커져서 겨울철 민콧이나 여름철에도 감기가 발생한다. 증상은 다른 계절의 감기와 온도외 실외온도의 차가 적도록 냉방을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낮잠을 잘 때에도 아이를 벗겨서 재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찬 바람이 직접 닿는 곳에서 지거나 오래 머물면 좋지 않다. 승용차로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에도 냉방을 강하게 유지하면 나뻑고, 수시로 환기를 하거나, 냉방시 바깥 바람이 들어오도록 수시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목욕후에 젖은 몸으로 찬 바람을 쏘이며 수면을 취하는 것은 위험천만 하다.

유형성 결막염

아플로 눈병이라 흔히 불리우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 이에 속한다.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여 환자의 수건이나 세면도

■ 이파대학 각 교실, 의학관 입주 마무리

구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쉽게 전염될 수 있고, 수영장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쉽게 전파된다. 증상은 결막 충혈, 통증, 이물감 및 과도한 눈곱 등이며 입과선이 붉는 수도 있다. 감염된 환자와 멀리 하는 등 예방이 중요하고 유행시에는 수영장에는 가지 않아야 한다. 치료는 꼭 안과에서 받아야 한다. 이차감염 등의 합병증이 없으면 1-3주 정도에 회복이 되는데, 약국이나 자기치방을 통하여 임의로 치료함으로써 후유증이나 시력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급성 외이도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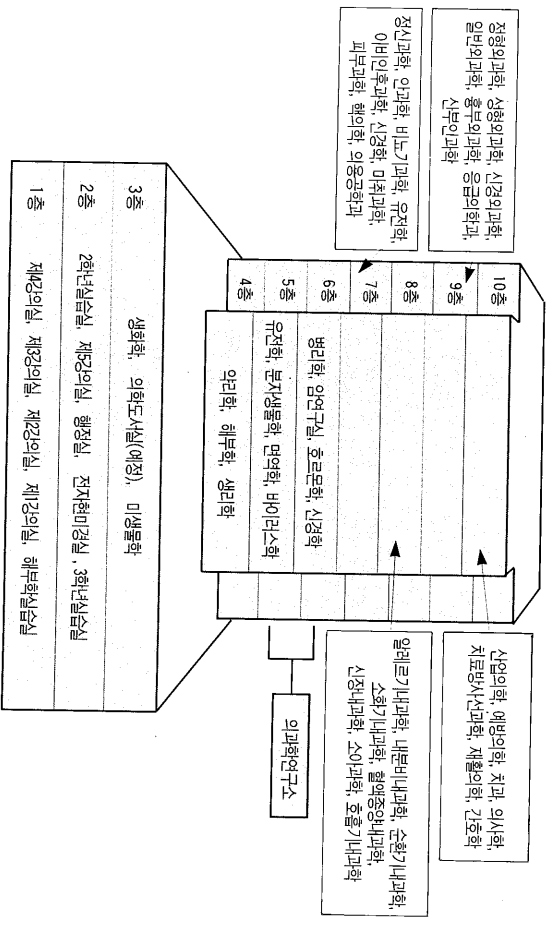
수영으로 귀에 물이 들어가서 귀가 멍하고 답답할 때 함부로 면봉 등으로 쑤시면 외이도에 상처를 내게되고 균에 감염된다. 특히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고 귀에 물이 들어갈 기회가 많기 때문에 외이도의 세균에 대한 면역기능이 떨어졌다. 귀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 따뜻한 곳에 귀를 대고 옆으로 누워있으면 쉽게 물이 빠져 나온다. 귀가 아프고 진물이 나오는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자기치료를 하다가 병이 확대되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흔하므로 처음부터 이비인후과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전 공	담당교수
청소년 질환	홍창호
소아신경 질환	김성환
소아신장 질환	배기수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이수영
소아심장 질환	정조원
미숙아 신생아 질환	박문성
	김문규

▶아주대학 교병원 소아과 전문진료▶

문의전화 : 0331-219-5619

- 자료제공 : 소아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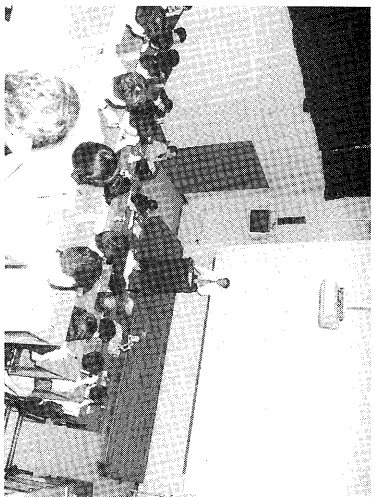


의학관 증축공사가 공사시작 1년여만에 마무리되어 지난 6월22일부터 입주를 시작, 대부분의 기초화 및 입상 각 교실이 입주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의과대학 교수연구실 공간의 여유가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은 물론, 효율적인 공간배치로 연구의 효과를 크게 높이게 했는데 이것은 유사성이 짙은 과를 한 단위(층)으로 묶는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내과의 경우 8층에, 외과학 각 교실은 9층에는 배치함으로써 연구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했다(그림 참조).

의학관을 총별로 살펴보면, 1층에서 3층까지는 기존의 공간배치와 크게 다른 것 없이 강의실과 행정실, 의학도서실 등이 입주할 예정이고, 의학도서실은 현재 내부 공사중이다.

한편, 9월경에 개소에정인 의과대학연구소는 내부공사가 끝나면 2층 전자현미경실과 4층 행정부서(소장실 및 회의실 포함)을 제외하고는 모두 5, 6층에 자리잡게 되고, 5층과 6층에 9개의 실험실이 나뉘어 들어서게 되며 공간 배치에 있어서도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중심으로 배치,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7층부터 10층까지는 입상 각 교실들의 교수연구실이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인데 병원내에 교수연구실에 확보되어 있는 진단방사선과, 미취과, 임상병리과 등은 의학관내 공간배치에서 제외됐다.



Team제 워크샵 개최

의료원이 경영합리화와 업무수행 능력 및 조직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팀장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에 적합한 팀장제도의 개념정립 및 인식확대를 위한 워크샵이 개최됐다. 지난 14일 오후 4시부터 의학과 제2강의실에서 열린 이번 워크샵에는 의료원 계장급 이상 직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빙강사의 강의를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초빙강사로는 맥스컨설팅 그룹의 김광영 박사(외 변해야 하는가), 대우그룹 회장비서실 정금조 이사(아주대학교의료원 팀장제 도입을 위한 제시의견)가 강의를 맡았다.

의 심사를 거쳐 5점의 포어를 선정됐다. 선정된 포어는 각 부서 사무실에 부착하고 물품 관련양식 하단에 삽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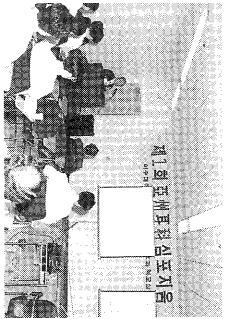
■ 최우수작(1점)
친절봉사 철저서랑
물지절약 병원서랑
— 김경규(경리과)

■ 우수작(2점)
내가이끼 병원제산
주인의식 꽃피운다
— 김정호(기획과)

부족하다 생각 말고
있는 채고 확인하자
— 조병주(관리과)

■ 가작(2점)
소중한번 절수한번
병원서랑 나라서랑
— 합수미(소아과)

내가이끼 종이한장
큰힘되어 돌아온다
— 송미경(약제과)



제1회 제주포럼 개최

이번인후과학교실(주임교수 朴起賢)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제1회 「이주 투과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주 투과 심포지움」은 투과화 분야의 활성화

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될 예정으로 제1회 행사는 지난 7월 14일 오후 6시30분부터 병원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전국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투과화 분야에 관심있는 스텝 및 전공의 2백여명이 참석, 2시간 30분동안 진행됐으며 한국 의과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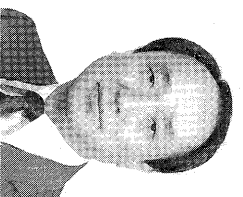
수술의 실태)가 특강을 하고 참석자들간 토론이 진행됐다. **포어공모 당선작 발표**
의료원은 재료비 절감, 재고 금액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교직원들의 동참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6월21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포어를 공모했다. 그 결과 47명의 응모자가 98점의 표어를 응모했으며, 불투시스템 조거정착 추진팀

내과 정기집담회 개최
병원 내과부가 지역내 개인 가들의 내과화 분야의 정보교환 및 최신지견 습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월 개최하고 있는 내과 집담회가 두번째로 열렸다. 지난 7월20일 병원 2층회의실에서 지역 개인의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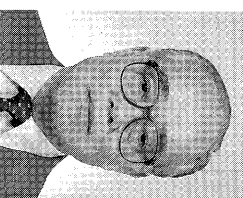
이과대학, 객원교수 임명

- 미생물학교실, 예방의학교실

의과대학 학생교육과 협동연구를 위하여 미생물학교실에 邊光浩교수, 예방의학교실에 方숙, 李晟雨 교수 등 객원교수 3명이 6월1일자로 임명됐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원인 方숙 교수는 44년 세브린스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대 보건대학원, 미시간대 보건대학원 등에서 수료후 보건사회부 방역국장과 연세의대 교수,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했으며, 邊光浩교수는 67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워싱턴대 의대 조교수, KIST 유전공학연구소 면역학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생명공학연구원 소장 및 대한의사협회 학술위원으로 있다. 李晟雨 교수는 5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



邊光浩 교수
(미생물학교실)



方숙 교수
(예방의학교실)



李晟雨 교수
(예방의학교실)

보건대학원을 거쳐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보건국장, 국립보건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의료보험연합회 진료비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객원교수 임용기간 1년동안 方숙, 李晟雨 교수는 예방의학교실에서 지역사회의학 포럼그림 개발 및 지역사회 의학과 보건정책에 관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집담회에는 사회기내과 趙聖元 교수가 「건강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강의했다. 李相仁 소사회기내과 주임교수 (내과부장)은 도내 유일의 3차 진료기관이면서 대학병원 인 우리 병원이 이와 같은 집담회를 통해 진료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들의 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참가자들은 의화협회 연수과정 2점을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월29일 개최된 첫번째 집담회는 지역 개인의 40여명이 참석해 순환 기내과 崔炳日 주임교수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치료」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었다. 자세한 사항은 219-5902번.

지원봉사자 교육 실시

사회사업과는 우리 병원에서 활동중인 지원봉사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12시간의 교육을 통해 지원봉사자로서의 역할, 환자 및 내원객 응대법,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절차 등 병원의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 다른 병원 지원봉사 활동 견학 등 실질적인 면까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상진 사회사업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병원에는 2백50여명의 지원봉사자가 활동중인 데 보다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원봉사 활동이 되도록 이번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에 연구비 기증

오공회(연세외대 이비인후과 화교실 수련 전공의 모임) 수원지부가 이비인후과화교실에 연구비 1천만원을 기증했다. 이비인후과 朴起賢 주임교수에 따르면 수원시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오공회원 4명은(이희용, 이민응, 김상기, 심형보) 지난 봄 우리 의과대학에 1천만원을 기증, 이과 분야의 동물실험, 전공의 교육 등 이과 학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는 축두골 해부 현미경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 3일 李成喆 부총장은 이들을 의료원으로 초청, 감사패를 증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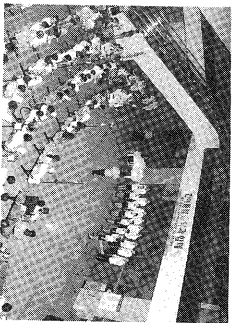
투신경화 특강 개최

이비인후과는 투신경화 분야의 저명한 의화학자 Brady Welling 박사(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이비인후과 부교수 겸 투신경화 연구소장)를 지난 6월22일 우리 병원으로 초청, 17시30분부터 2시간동안, 「청신경 종양의 수술요법」과 「제2형 신경섬유종 유전인자의 새로운 변이에 대한 검색」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었다. 이날 특강에는 연세외대, 서울외대 등 전국외 이비인후과 교수 4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비인후과 朴起賢 주임교수에 따르면 Brady Welling 박사는 투신경화 분야의 특이하고 풍부한 임상경험 가지고 있는 의화학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라면서 특강을 통해 자신의 임상경험을 정리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15회 건강공개강좌 개최

수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공개강좌가 지난 25일 병원 2층회의실에서 15번째로 열렸다. 강사는 의무부총장 李成喆 교수(피부과)가 「여드름의 치료」라는 주제로 90분간 강의를 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 개최



사회사업과는 음악을 통해 지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수원 삼성전자 성진회합창단을 우리 병원으로 초청, 지난 7월29일 오후 6시30분부터 병원 1층 로비에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와 기타 선율이 맞춰 귀에 익

은 가요와 팝송 등을 공연했는데 150여명의 환자 및 보호자들이 참석해 상향을 이뤘다.

장애인 진단기관 지정
우리 병원이 지난 6월14일 수원시로부터 심신장애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등에 대한 심신장애진단서 발급업무를 시작했다. 자세한 문의는 원무과 0331-219-5446/7.

급여이체 은행 추가 지정
경리과는 현재 수수료 없이 자동 급여이체를 실시하고 있는 시중 6개 은행(제일, 국민, 신한, 외환, 조흥, 한일)외에 주택은행을 추가로 개설,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망지는 급여송금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리과(5372)로 문의바람.

- 도서기증 캠페인 -

도서기증 캠페인 의료원 목표권수는 5천1백30권으로 교수는 1인당 100권, 직원은 20권, 학생은 2권이며, 현재 기증책수는 465권이다. 기간은 12월31일까지. (문의 : 의화도서관 5312).

도서기증자 명단(95. 6.22~ 7.20)

성명	소속	기증책수(권)
이성낙	의무부총장	245
이영돈	해부학교실	10
주일로	약리학교실	45
이종원	의사학교실	29
김영현	피부과학교실	2
김성진	비뇨기과학교실	10
전상현	의화도서관	2
필환기	의화도서관	11
윤환기	행정처장	20
김윤호	총무과	71
이영호	구매과	20
총		465

인사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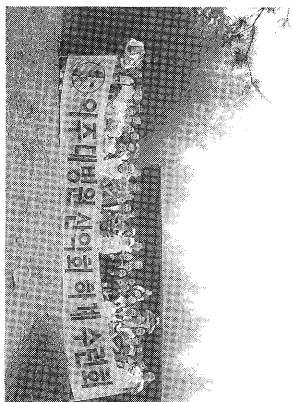
▶ 교원동정 ▶

- 趙京基 부교수 (7.2~7.13, 호주) 뇌종양치문의 최신지견 습득차
- 金濼堧 부교수 (7.24~8.4, 미국) 제9차 세계면역학회 참석차
- 金度憲 부교수 (7.3~7.12, 스페인) 국제신장학술대회 심포지움 참석차
- 金相辰 부교수 (6.26~7.4, 이탈리아) 유럽안과학회 참석차
- 朴明哲 조교수 (6.29~7.8, 핀란드) 제6차 국제수부의과연맹총회 참석 및 논문발표차
- 朴熙鵬 전임강사 (6.29~7.6, 일본) 일본유암학회 참석차

▶ 축하합니다 ▶
 ● 결혼 ●
 김해자(예방의학교실), 최영주(안과), 김준화(재활의학과), 오영미(총무과), 이영순(원무과)

동 호 회 소 식

산악회 하계 수련회



산악회는 회원들간의 친목 도모와 심신 단련을 목적으로 하계 수련회를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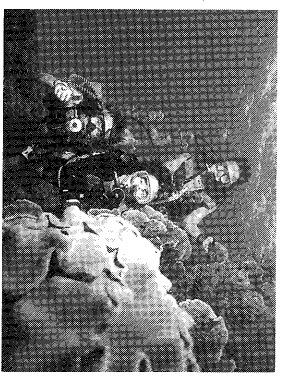
서 가졌다. 이날 경기는 뛰어난 리바운드와 멋진 3점슛의 결과 43:33으로 Good Shot이 완승을 거뒀다.

Ajou SCUBA Diving

도 청태산 자연 휴양림에서 গত다. 지난 7월8일 9일 양일간 회원 및 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정기총회, 장기자랑, 캠프피이어,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진행됐다.

Good Shot VS AMBULANCE

농구동호회 Good Shot은 타 대학 병원의 농구동호회와의 교류를 위해 정기적인 경기를 갖기로 하고, 첫번째로 단국대학교병원 농구동호회인 AMBULANCE와의 경기를 지난 7월15일 안산 올림픽체육회관에



▶ 바다속에서 기념촬영(위에서부터) 장두형(의용공학과), 최연숙(신생아실), 박관숙(재활의학과)

건강공개강좌 강의계획 안내 (95하반기)

수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열리고 있는 무료 건강공개강좌의 하반기 강의계획이 발표됐다. (문의 : 사회사업과5591).

회차	일시	강 의 제 목	강사	소 속
16회	8/29	중이염	전영명	이비인후과
17회	9/27	당뇨병성 망막염	유호민	안 과
18회	10/31	인공치아 이식치료의 이해	황병남	치 과
19회	11/29	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방사선치료의 이해	전미선	치료방사선과
20회	12/26	화상의 응급처치법	조준필	응급의학과
21회	1/30	비뇨기과질환의 진단과 치료	김영수	비뇨기과
22회	2/27	알레르기과 기관지 천식	박해심	알레르기내과
23회	3/26	유전병이란? 회귀하기도 불치병도 아니다	김현주	유전학교실
24회	4/30	빈혈의 예방과 치료법	김현수	혈액내과

의료원장 제언함
 FAX : 219-6974
 행정지원실
 FAX : 219-6630

판공산 가스 폭발 사건

질 창한 숲!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대자연인 신이 갖는 의미는 날로 더해 가는 각종 공해와 오염, 스트레스속에서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 있어서 는 더할 나위없이 소중한 것이다. 우리에게 신은 그저 단순 한 의미의 신이 아니다. 신은 생활의 활력소요, 인식처요, 우 리 인간을 마지막까지 지켜 줄 영원한 고향인 것이다.

신에서는 조그마한 실수나 판단착오가 자칫 돌이킬 수 없 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즐거운 등산을 위해서는 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등산의 기본적인 상식, 기술 등을 알고 지켜야 한다.

지난 여름해 동안 산을 오르면서 제일 먼저 겪었던 소금강 사건을 비롯 팔공산 사건, 속리산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그중 안전사고 부주의로 인한 팔공산 가스폭발사 건에 대해서 적어 본다.

정상에서의 전망은 부슬비와 짙은 안개 때문에 볼 수가 없 었지만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방울이 마치 살화(화)가 핀 것처럼 아름다웠고 우리를 반겨 주고 있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상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은 후의 즐거운 점심시간. 각 자 준비해 온 행동식을 꺼내놓고 맛있게 먹고 있었다.

“아! 뭐 가지고 왔어?”

“김밥!”

“맛이 이상한 것 같다!”

또 점심때만 되면 찜기라 2개만 들고 설치는 녀석들. 밥을 못 먹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훑지만 열심히 배 채 우는 녀석들.

“회장님 워리케이소! 상습범이더예, 상습범!” 하고 투덜대는 여자 약우들을 보고 있자니 점심때만 되면 놀상 하는 것이 지만 또 한소리 해야겠다.

“아! 너들 점심 좀 갖고 다녀라. 당일 신행때만 항상 찜기 띠만 가지고 다니나. 여자 약우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다.”

“아! 헬(형님 사투리) 밥 먹는 것 같고 뭐 그리닌겨. 헬 안먹고 사닌겨, 배고픈데 우이닌겨.” 하며 내게 눈을 힐끗하 고 별 생각이 없이 배만 채운다.

저! 즐거운 점심시간은 끝!

하산준비를 하고 쓰레기를 소각하려 하는데 불이 잘 붙지 않아 조금 남은 부탄가스를 쓰려고 했다. 물론 위험하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했지만 형님이 굳이 사용하려고 해서 그냥 하는대로 두었다. 다른 회원들을 모두 자리를 이동시키고 나 서 형님은 가스 용기 한가운데를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 나

오는 가스에 불을 붙였다. 형님은 가스가 다 소모되었다 생각했는지 가스통을 불 속에 던졌다.

“형님, 가스통을 불 속에 던져버리면 우이닌겨, 타지면 지잖아요.” 하며 화를 내었다. 형님은 구멍이 뚫어졌으니 금 남은 것을 다 태우려고 던졌으면서 괜찮다고 했다. 형 은 태오르는 불 앞으로 다가가 불을 쬐고 있었고 두명의 구가 더 다가가 관찰하면서 같이 불을 쬐면서 따뜻하다며 있었다. 거의 불이 다 소멸될 때쯤에 내가 인원피악을 하고 아서는 순간, ‘헉!’ 하는 굉음과 함께 ‘이차, 사고다! 다쳐! 양았어야 할텐데—!’ 격정이 태산같이 밀려왔다. 두명의 구가 그 자리를 떠나고나서 가스를 사용한 형님이 마지막 은 불씨를 제거하려고 할 때 가스통이 옆에 건다다못해 폭 해 버린 것이다. 조금은 짧은 머리의 형님. 갑자기 이공리(로인)로 다시 태어났다. 이걸 웃지도 못하고 화를 낼 수 없었다. “형님 내 워리커닌겨, 부탄가스는 사용하지 말라! 인허닌겨.” 하며 벌써 화를 냈지만, 머리만 그을리고 다른 것은 없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내심 인도의 숨을 내쉬었다. 돌아오는 차 속에서 머리가 잘 나왔다는 통, 머리하는 데 얼마 주었나는 통 그 모습을 보고 한바다(책)하며 한바(뽕) 웃었다.

신행때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가 하는 고민이던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정상에 서면 그 고민은 인 개가 걸히듯 순식간에 사라질 뿐이나라 일상의 찌든 마음(개)지도 말끔히 사라진다. 그렇지만 유명한 등산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이 저기 있기에’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유형적인 것보다 무형적인 것이 더 많기 때문이고 그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에 ‘내가 있기에’ 옳다라고 나 자신만의 새로운 정의를 내려본다.

〈진정 자연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다.〉



金 俛 德(해부령리과 근무)

